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조중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72호 [주제 제25681호] 주제 106 (2017)년 6월 21일 (수요일)

당의 령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려명거리건설을 적극 지원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려명거리건설을 성실히 외치며 지원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려명거리건설을 통하여 주체조선의 강대성과 국력을 남김없이 시위할데 대한 당시의 뜻을 받들고 영광가구전체회사 사장 신남철은 말은 전세를 생산조직과 지원을 끌어가기 위하여 전후방장에 수십차례나 찾아가 많은 자제와 후방 풍자를 통하여 크게 지원하였다.

수도건설위원회 회장 한경일도 착공의 첫날 부터 늘 진실장에 나가 걸린 물체들을 수시로 알아보고 공사에 필요한 설비부속품들을 계획에 해결해오며 톨목대원들의 생활에도 뜨거운 협유의 정을 기울였다.

지난 기간 온 가족과 함께 중요대상건설지원 사업을 통하여 온 상업성 산하단위 지원인 김수원은 려명거리건설장을 여러 차례 찾아가 힘들게 해오면서 톨목대원들의 생활에도 뜨거운 협유의 정을 기울였다.

속도전 청년들격대 소대장 김경국은 공사초기부에 대건설장을 위하여 힘들게 해오면서 톨목대원들의 생활을 적극 고무하였다.

동구공공건물건설사업소 톨목자 소영애도 톨목대원에게 힘들게 해오면서 톨목대원들의 생활을 위하여 전시공사에 힘들게 해오면서 톨목대원들의 생활을 적극 고무하였다.

우리 당이 철진 풍대한 실계도를 최단기간에

현실로 꽂아올 의지를 안고 내각사무국 산하단위 톨목자 김기명은 하루일을 끝마치고 건설장에 달려가 자제출판과 지지성과 등을 스스로 말하면서 지원사업에 앞장섰고 경공업성 톨목자 김항준도 야간지원을 적극 활용을 활발히 벌리하였다.

조선혁명의 려명이 밟아오는 뜻깊은 곳에서 갈들은 삶을 빛내여 각의의 면모로 만년보건회사 산하단위 톨목자 김영실은 단숨에 기상과 편처자는 인민군군인들을 향으로 적으로, 물질적으로 원호하였다.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실장 박성미도 거점에서 서면장으로 내세워온 당시의 뜻을 깊이 새기고 고려 항공여행사 안내통역원 김은혜는 혁명군대의 위력을 남김없이 맨처자리로 달려가 인민군군인들과 속도전 청년들격대원들의 전투적사기를 북돋아주었다.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실장 박성미도 거점에서 서면장으로 내세워온 당시의 뜻을 깊이 새기고 고려 항공여행사 안내통역원 김은혜는 혁명군대의 위력을 남김없이 맨처자리로 달려가 인민군군인들과 속도전 청년들격대원들의 전투적사기를 북돋아주었다.

상업성 무원 장경희, 진실전체공업성 산하단위 무원 신언주, 기관차체육단 톨목자 박성만도 톨목동지대의 선경련리를 함께 일터에서 우수한 성과를 풀어놓았으며 많은 기공구와 물자들을 성의껏 지원하여 완공기 일을 앞당기는데 이마저 있다.

동구공공건물건설사업소 톨목자 소영애도 톨목대원에게 힘들게 해오면서 톨목대원들의 생활을 위하여 전시공사에 힘들게 해오면서 톨목대원들의 생활을 적극 고무하였다.

우리 당이 철진 풍대한 실계도를 최단기간에

책임적으로 수행하면서 지원사업을 잘하여 대중의 존경과 밝았으며 922건설총력대에 달려나가 혁신의 구슬땀을 바쳐가는 평양기원차대 기관조사 톨목자 김광혁도 려명거리건설에 공민적 향심을 품어왔다.

사회와 접두를 위한 좋은 일을 많이 하여 온 막강구역 통산동 361인민 김순희, 풍구역 경정동 151인민 심은희, 선교구역 강안1동 151인민 린광우는 많은 기공구와 실비무속품, 후방원들을 가지고 건설장에 찾아가 전투원들을 모여서 힘차게 활동하고 있다.

특유영에 군인인 원산지도로시설관리소 풀길을 세우고 그의 가장에서는 당시의 사랑과 은정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려명거리건설에 맨처자리로 군인을 찾고 전투원들을 전투원들에게 힘차게 활동하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책임으로 수행하면서 지원사업을 잘하여 대중의 존경과 밝았으며 922건설총력대에 달려나가 혁신의 구슬땀을 바쳐가는 평양기원차대 기관조사 톨목자 김광혁도 려명거리건설에 공민적 향심을 품어왔다.

상당성 무원 장경희, 진실전체공업성 산하단위 무원 신언주, 기관차체육단 톨목자 박성만도 톨목동지대의 선경련리를 함께 일터에서 우수한 성과를 풀어놓았으며 많은 기공구와 물자들을 성의껏 지원하여 완공기 일을 앞당기는데 이마저 있다.

동구공공건물건설사업소 톨목자 소영애도 톨목대원에게 힘들게 해오면서 톨목대원들의 생활을 위하여 전시공사에 힘들게 해오면서 톨목대원들의 생활을 적극 고무하였다.

우리 당이 철진 풍대한 실계도를 최단기간에

후대들의 예술교육사업을 위해 베풀어진 크나큰 은정

[평양 6월 20일 조선중앙통신]
1자나는 새 세대들의 주인은 꿈과 희망을 꽂아주는 우리 당의 끝을 운정은 후대들을 위한 예술교육사업에도 꽂아주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의 사랑에 맞는 축구치는 걱정을 금지 못하였다.

주체에 술발점과 후대교육사업에 끝을 리신 위대한 수령 김정일 동지와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시며 우리 음악에 술의 창황한 미래를 펼쳐나가는 최고령도자同志의 사랑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에 대한 칭송을 끝까지는 고마움과 감사의 정이 어려있었다.

그들의 열굴마다에는 예술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흥룡한 새 교사들도 마련해주시고 데를 두고 길이 전할

온정을 베풀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에 대한 칭송을 끝까지는 고마움과 감사의 정이 어려있었다.

그들은 후대들에게 이 세상 모든 행복을 안겨주시며 강성조선의 끝을 세우고나갈 주인공들로 자라나도록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에 대한 칭송을 끝까지는 고마움과 감사의 정이 어려있었다.

여기에는 새 세기 교육혁명의 끝을 세우고나갈 주제에 술을 끝까지는 고마움과 감사의 정이 어려있었다.

그들은 후대들에게 이 세상 모든 행복을 안겨주시며 강성조선의 끝을 세우고나갈 주인공들로 자라나도록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에 대한 칭송을 끝까지는 고마움과 감사의 정이 어려있었다.

우리 당의 사랑에 맞는 축구치는 걱정을 금지 못하였다.

우리 당의 사랑에 맞는 축구치는 걱정을 금지 못하였다.</

대조선암박정책으로 얻은 것은 수치와 패배뿐

세계의 주요인물과 전문가들이 올해에 들어와 벌어진 조미대결을 놓고 밀써 부터 승패문제를 둘고 있다.

결론에 대해 말한다니, 승자는 조선이고 패자는 미국이라는 것이다.

최근 서방의 어느 한 나라 신문은 『트럼프행정부와의 대결에서 승리한 조선』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올해 년초부터 이전 조미사이의 대결은 조선의 승리로 결속되었다고 했지만, 그 이후에는 물론 대체 말들만 짚는 경지에 초래하였다. 일로 미국이 또다시 도달한다면 그 대로 역시 조선의 승리를 결속될 것이다라고 확인하였다.

도이월란드, 에스파냐를 비롯한 서방언론들도 전문가들의 말을 빌어 트럼프행정부가 조선과의 정치군사적 대결에서 패하여 궁지에 빠졌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미행정부들이 어떤 간판을 내걸든 대조선적 대시정책은 풍파만을 일으킨다.

트루먼으로부터 시작하여 오바마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역대 정부들은 우리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한 정책들을 내놓고 곤혹하게 실행하였다. 친동도 해보았고 해위로 풍각의 도수도 높여 보았으며 초강도 세제압박도 거해보았다. 하지만 그로 하여 미국이 얻은 것은 수치와 패배뿐이다.

트럼프행정부의 대조선정책도 같은 결과만을 낳고 있다. 이전 정부들의 엉청난 파악을 빼풀이하지 않으면서 트럼프행정부가 실속하고 하여 만들려고 하는 『최대의 압박과 판여』정책은 간관만 더럽고 그 본부만에게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에 대한 극악한 적대시이다.

트럼프의 『최대의 압박과 판여』정책은 선임자들이 실제의 쓴맛을 보기 위해 사의 오를 통해 절연장을 풀어놓은 것이다.

저것 끔파맞춘 불풀없는 조립정책에 불과하다. 결국 트럼프가 이루어 시 통을 걸어도 그 정책은 수령에 빠진 자동차처럼 소리에 모반하여 네루를 끌어들이며 공회장을 하면서 미국의 면상에 수치와 패배의 홀랑을 풀어 놓을 티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는 대조선군사적 압박정책의 실효성을 『기리풀트』, 『독수리』를 통한 군사연습을 통해 검증해보려 하였다. 이 행정연습은 30여 명의 청탁부와 각종 협력자사단들을 충돌시켰다. 지난해보다 3배나 더 많은 특수작전부대들이 밀었고, 『칼리슨』호에 항공모함과 함께 출동시켰다. 수리이의 공군기지에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수십기를 퍼붓고 아프가니스탄의 한 지역에 초대형 폭탄을 투하하는 등 헤비 무기를 부리며 『4 월전쟁설』을 유포하였다.

하지만 미국은 예상할 수 없었던 우리의 초강대응에 뿐만 아니라 『4 월전쟁설』을 유포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조선인민군 전략군 확성부명부대들의 만도로에 텔랄사총연, 새

여러 차례에 비행시켜 핵폭탄두연습을 감행하는 한편 『미니트맨』-3 대체 폭탄판도미 쌔일시 험발사, 우리의 만도로 페트로공격을 가상한 미씨밀기시험 등을 벌려놓으면 궁지에 빠져들었다.

그러나 미국은 미 혼동을 빼지 않으면 안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미 대평양군사부가 동지를 빙고 있는 외화이와 미국 알리스 카사를 사정전원에 두고 있는 지상대지장장기리전략판도로계 『화성-1 2 0』형 시험발사, 부대 실전전비를 앞둔 지상대지장

증강기리전략판도란 『북극성-2』형 시험발사, 신형 항공공포육도무기제의 시험사격과 정밀 항공유도무기제를 도입한 만도로드의 시험발사,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기 지원성원들의 전투비행 출격 대회-20 1 0 7』, 새로 개발한 신형지 상대 대상황로드 테스트시험발사 등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온 행성을 전각시켰다.

이를 통해 세계는 미국이 『무적』을 자랑하는 핵항공모함이나 핵전략폭격기와 같은 전략자산들을 빼밀었거나 주제조선인민군 휴수작전부대 강하 및 대 상물 타격경기 대회-20 1 0 7, 대체 한 수명 김정성성동지 판정 1 0 5 끝

류에 없는 참활을 뒀을지도 모르겠다.

외신들이 평화다심이 미핵 항공모함과 함께 대상화제로 놓여온 미군 군용 항공기로는 풍족하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얼마전 주종세력을 끼지 충동원하여 유엔기본보장리사회 회의 『제재결의』를 또다시 조작해내고 재제압박에 광운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때까지 않고 자력지장을 통으로

로 하여 눈부신 비약과 발전을 이룩해나고 있다.

시대 속으로 대조선적 대시정책을 탐습

하면서 트럼프는 선임자들보다 더 막다른

궁지에 빠져들었다.

지금 미국은 우리와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몰라 청진공공하는 난감한 처지에 빠져들었다.

이를 두고 서방의 인물들은 전반적인 국면에서 봤을 때 조선은 미국보다 공세적

인 편성이며 조선의 전략부수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온갖 기록한 시련을 겪어온 조선에 있어서 미국이 추구하는 『최대의 압박』을 기부시는 것은 식은죽이다.

『최대의 압박』을 기부하는 것은 식은죽이다라고 하면서 조선은 미국과 배신들은 든한 조선, 이것이 현 조미관계의 본질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대조선적 대시정책은 실현 가능성에 전혀 없다. 왜냐하면 너무나 시대 속으로 대처하기 때문이다.

누구의 압박이 더 강한가, 세계인들은 전문가를 바꾸는 미국보다 조선의 압박이 더 강하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트럼프행정부가 벌다른 대응책을 세우지

않고 시간만 허비 보내는 속에서 미국에 대한 조선의 압박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

고 평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년도 조미대결과는 미국이 입학할 수록 주제 조선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

동방의 해 강국, 아시아의 조제트령 주국으로 우뚝 솟아오른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 위치는 더욱 확고해지고 있다.

미국이 우리와 대결에서 아직도 교훈을 찾지 못하고 계속 무모하게 날뛰면 더 큰 수치와 패배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리경수

조선승리를 담보하는 만년초석

여러 나라 인사들 강조

그이께서는 김일성 주석께서 경정일 동지 능지에 칭시하신 주체사상을 발전시키면서 조선혁명론이나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전세계 전보적인 인민들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었다.

페비는 근로자 편민 흥서기는 조선로동당을 수령의 사상파 명도체계가 확고히 선 당시, 인민 대중 속에 깊이 뿐 뿐,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살펴주는 어머니당으로 강한 조직성과 규율성을 가진 전투적인 당으로 전진하던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을 치하하고 조선은 정치사상 강국으로 위용휘칠수 있음을 기념하는 일이다.

나이에 김정일 각하의 태워한 수령의 영광에 빠져나온 조선로동당은 그의 영광에 걸맞게 조선인민의 열렬한 홍보심의 발달이라고 말하였다.

안미현 대령 대체평양평등 중앙위원회 위원인 양군지역 위원회에서는 김정일 각하의 영광도 업적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존경과 사랑으로 전개된 시기에서 혁명적 당 전설의 빛나는 본보기로 창조한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수령을 기리고 강조하였다.

니체의 『와이트로 희사』는 청정과 평정, 인민 대중 속에서 전개되는 조선로동당의 영광에 대한 수령의 영광이다.

우간다 전국 항쟁 운동에서 국가는 이렇게 강조하였다.

조선로동당에 택시의 온갖 도전을 물리치고 승승장구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김정일 동지의 업적과 때에 놓고 생활 할 수 있다.

조선로동당에 인민 대중과 혼연 일체를 이루고 조선혁명의 정체적 원칙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는 것은 김정일 각하의 태워한 수령의 영광이다.

우간다 전국 항쟁 운동에서 국가는 이렇게 강조하였다.

김정일 각하께서는 1964년 6월 19일 조선로동당 정체적 원칙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는 것은 김정일 각하의 태워한 수령의 영광이다.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조선로동당 역사의 갑피마다에는 당시 조선로동당 정체적 원칙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는 것은 김정일 각하의 태워한 수령의 영광이다.

페비는 1964년 6월 19일 조선로동당 정체적 원칙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는 것은 김정일 각하의 태워한 수령의 영광이다.

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 정체적 원칙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는 것은 김정일 각하의 태워한 수령의 영광이다.

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 정체적 원칙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는 것은 김정일 각하의 태워한 수령의 영광이다.

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 정체적 원칙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는 것은 김정일 각하의 태워한 수령의 영광이다.

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 정체적 원칙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는 것은 김정일 각하의 태워한 수령의 영광이다.

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 정체적 원칙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는 것은 김정일 각하의 태워한 수령의 영광이다.

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 정체적 원칙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는 것은 김정일 각하의 태워한 수령의 영광이다.

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 정체적 원칙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는 것은 김정일 각하의 태워한 수령의 영광이다.

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 정체적 원칙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는 것은 김정일 각하의 태워한 수령의 영광이다.

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 정체적 원칙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는 것은 김정일 각하의 태워한 수령의 영광이다.

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 정체적 원칙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는 것은 김정일 각하의 태워한 수령의 영광이다.

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 정체적 원칙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는 것은 김정일 각하의 태워한 수령의 영광이다.

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 정체적 원칙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는 것은 김정일 각하의 태워한 수령의 영광이다.

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 정체적 원칙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는 것은 김정일 각하의 태워한 수령의 영광이다.

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 정체적 원칙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는 것은 김정일 각하의 태워한 수령의 영광이다.

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 정체적 원칙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는 것은 김정일 각하의 태워한 수령의 영광이다.

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 정체적 원칙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는 것은 김정일 각하의 태워한 수령의 영광이다.

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 정체적 원칙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는 것은 김정일 각하의 태워한 수령의 영광이다.

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 정체적 원칙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는 것은 김정일 각하의 태워한 수령의 영광이다.

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 정체적 원칙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는 것은 김정일 각하의 태워한 수령의 영광이다.

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 정체적 원칙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는 것은 김정일 각하의 태워한 수령의 영광이다.

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 정체적 원칙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는 것은 김정일 각하의 태워한 수령의 영광이다.

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 정체적 원칙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는 것은 김정일 각하의 태워한 수령의 영광이다.

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 정체적 원칙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는 것은 김정일 각하의 태워한 수령의 영광이다.

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 정체적 원칙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는 것은 김정일 각하의 태워한 수령의 영광이다.

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 정체적 원칙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는 것은 김정일 각하의 태워한 수령의 영광이다.

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 정체적 원칙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는 것은 김정일 각하의 태워한 수령의 영광이다.

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 정체적 원칙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는 것은 김정일 각하의 태워한 수령의 영광이다.

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 정체적 원칙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는 것은 김정일 각하의 태워한 수령의 영광이다.

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 정체적 원칙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는 것은 김정일 각하의 태워한 수령의 영광이다.

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 정체적 원칙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는 것은 김정일 각하의 태워한 수령의 영광이다.

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 정체적 원칙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는 것은 김정일 각하의 태워한 수령의 영광이다.

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 정체적 원칙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는 것은 김정일 각하의 태워한 수령의 영광이다.

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 정체적 원칙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는 것은 김정일 각하의 태워한 수령의 영광이다.

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 정체적 원칙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는 것은 김정일 각하의 태워한 수령의 영광이다.

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 정체적 원칙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는 것은 김정일 각하의 태워한 수령의 영광이다.

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 정체적 원칙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는 것은 김정일 각하의 태워한 수령의 영광이다.

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 정체적 원칙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는 것은 김정일 각하의 태워한 수령의 영광이다.

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 정체적 원칙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는 것은 김정일 각하의 태워한 수령의 영광이다.

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 정체적 원칙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는 것은 김정일 각하의 태워한 수령의 영광이다.

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 정체적 원칙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는 것은 김정일 각하의 태워한 수령의 영광이다.

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 정체적 원칙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는 것은 김정일 각하의 태워한 수령의 영광이다.

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 정체적 원칙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는 것은 김정일 각하의 태워한 수령의 영광이다.

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 정체적 원칙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는 것은 김정일 각하의 태워한 수령의 영광이다.

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 정체적 원칙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는 것은 김정일 각하의 태워한 수령의 영광이다.